

중소 병·의원들 '불황 탈출' 백태

# “수술비 무이자 할부합니다”

서민들이 의료비부터 줄여가는 극심한 불황이 계속되면서 병·의원들이 고객을 끌기 위해 무료 찜질방을 운영하거나 맵인안마사를 고용하고 카드 무이자 할부를 최장 12개월까지 늘리는 등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기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는 물론 불황의 영향을 아직 덜 받고 있는 분야의 병·의원들도 올 한해 경기가 한 단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남구 진월동의 모 한의원은 원내 1층에 찜질방을 만들어 내원 환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찜질방은 불가마

## 찜질방 무료 운영 등 마케팅 경쟁 가족단위·장기환자 현금 할부도

체합실까지 갖추고 있어 노인이나 물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시 서구 풍암동 흥환의원은 침과 물리치료가 등에 의존하는 물리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맵인안마사를 ‘수기치료사’로 고용했다. 자격증이 있는 맵인안마사에게 일정 기간 한방교육을 이수토록 한 뒤,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들에게 직접 시술해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실적이 늘어나는 어려운

시기에 장애인을 고용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한의원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환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같이 광주 지역에서 맵인안마사를 수기치료사로 고용한 한의원은 현재 5곳에 달한다. 조만간 5개 가량의 한의원이 이에 가세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한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장애인 고용에 의해 지원받는 지원금을 모두 맵인안마사에게 기부하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방학 및 휴가철 특수로 비교적 경기의 영향을 덜 받은 안과병원들도 환자 확보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안과들의 전략은 대부분 고가 수술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해 말부터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무이자 할부 제도를 앞다퉈 도입했다.

L안과는 수술비가 100만원이 넘는 환자에 한해, 카드사에 따라 백화점의 경우 보다 긴 6개월 또는 12개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를 해주고 있다. K안과도 카드에 따른 할부 등 신분이 확실한 고객에 대해서는 현금 할부도 해주고 있다.

/최희경기자 chae@kwangju.co.kr

# 전완준 화순군수 친형 체포

## 광주지검, 인사·공사계약 개입 수뢰 혐의

화순군 안팎의 각종 비리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전완준 화순군수의 친형인 전모(65)씨를 체포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는 12일 화순군 인사와 공사계약 등에 개입해 돈을 받은 전씨를 앞선

수재 등 혐의로 체포돼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2007년 1월 이후 화순군의 허가 사업과 관련, 업주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씨는 또 군정 인사과정에 개입하

고 수천만원에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받은 돈이 전 군수 등에게 흘러갔는지의 여부와 함께 골프장 인·허가 문제 등 화순군 안팎의 비리의혹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액운 있어 제사 안지내면 화 입는다”

# 종교단체 사칭 3억여원 갈취

## 서부경찰, 5명 검거

종교 단체를 사칭해 집에 액운(厄運)이 있다고 속여 수백 명으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12일 “집에 액운이 있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며 제사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종교인 김모(여·33)씨 등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달아난 공범 김모(4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6일 오후 5시에 광주시 광산구 운암동 J아파트에 사는 K(43)씨의 집에 종교활동을 방해해 방문한 뒤, K씨에게 “조상으로 인해 가족에게 문제가 생긴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가족들이 화를 입는다”고 속여 제사비 명목으로 현금 836만원을 뜯어내는 등 최근까지 500명으로부터 3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일반주택에

제사상을 차리고 신통한 종교단체인 것처럼 소문을 낸 뒤, 건강과 가정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제사를 올리지 않으면 가족들이 화를 입는다”고 겁을 쥐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깨끗한 돈을 바쳐야만 병이 완치된다”며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해온 기도원에서 압수한 장부를 토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 신정아씨 재판 1심부터 다시

대법원이 지난 1월 형량을 다시 판단하며 파기 환송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의 형량에 대한 선고가 1심에서 다시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12일 신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와 관련한 유죄와 박사학위기 위조 등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원심 재판부인 단독 재판부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연남뉴스

## 내연녀 사진 유포·협박 전남경찰, 40대 검거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가족들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김모(43)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4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했던 A(여·42)씨가 지난해 6월부터 만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3월 초께 나주시 교통 자신의 집에서 촬영한 A씨의 나체사진 등을 가족들에게 보낸 혐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졸음운전 사고 예방하자” 12일 오후 한국 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백양사휴게소에서 졸음 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反 FTA 시위대·경찰 2년만에 합의 집회 참가자 750만원 배상

### 화해권고결정 확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장비 파손 등의 손해배상 문제가 집회 참가자들이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광주지법 민사26 단독 김승취 판사는 국가가 FTA 반대 집회를 주도한 4개 단체와 시위 참가자 4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750만원을 원고측에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의 이번 화해권고결정은 양측이 결정문을 전달받은 지 2주일간 이의 제기가 없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FTA 반대 시위로 인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간 송사는 시위 발생 이후 2년4개월 만에 매듭지어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경찰은 당초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에 시위집압용 물품들이 파손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1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가운데 750만원만 2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2006년 11월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FTA저지 광주·전남 시·도 민 총궐기대회’ 과정에서 진압봉 23개와 방패 21개 등이 파손됐으며 피고들을 상대로 1천200여만원의 손해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광주시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소송에 대해서도 “소송을 취하려는 대신 피고들은 사회봉사 명령에 참가하라”며 화해를 권고한 결과 시위 2년2개월 만에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나원침 (7751) 김장두



## 여수 앞바다 40대 남성 변사

12일 오후 1시53분께 여수시 돌산읍 성두마을 앞 30여m 해상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신원미상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77cm 가량의 키에 보통체격의 이 남성은 발견 당시 검은색 셔츠와 검은색 슬리퍼 차림에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kwangju.co.kr

## 쌍소니 숨기려 ‘車 도난’ 허위신고

### 상당팔

○광주의 한 상근에비역이 교통사고를 낸 뒤 영창에 가지 않기 위해 허위로 차량도난 신고를 했다가 결국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은 11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근에비역 박모(25) 일병을 조만간 군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할 방침.

○경찰에 따르면 박 일병은 지난 5일 오후 5시40분께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광주시 북구 오치동 모 마트 앞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도망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를 도난당했다”고 거짓 신고.

○박 일병은 경찰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부대에 통보될 경우 영창에 가게 될 것 같아 허위 신고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 free trial event for a health product. Text includes: '선택만능 수술의 힘' 수험기법 무료체험단모집. Details about the event location and dates.

Advertisement for Novita, a 10-year established beauty salon. Text includes: novita 신뢰할수 있는 10년 세월의 풍부한 경험과 관록의 비데전문기업! 비데프라자. Contact information: ☎(082)515-1144.